

해남군, 땅끝해넘이해맞이 행사 취소

화원 오시아노 해넘이·북일 오소재 해맞이 행사는 개최...안전관리 강화



해남군은 땅끝마을에서 열리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다. 땅끝해넘이해맞이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공연이나 행사를 갖지 않고, 방문

객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해넘이해맞이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관람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운영한다.

땅끝마을의 뱀섬일원과 땅끝전망대 등 관광지는 개방하고,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 편의를 위해 교통·주차인력을 배치하고 땅끝마을 관광안내소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한편, 석양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화원면 오시아노 캄핑장 일원에서는 해넘이 행사가 계획대로 열린다. 축하공연, 해넘이 제례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안전사고 발생 예상지역의 출입을 차단하고 안전요원들이 밀집인원을 통제한다.

북일 오소재 공원에서 내년 1월1일 오전 5시부터 계묘년 해맞이 행사가 예정 중이며, 차량 및 난간을 통제하고 각 지점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을 확보한다.

명원관 해남군수는 "방문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관내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2명 선발 경제교통과 조강철 팀장·건강증진과 박소영 주무관



완도군은 '적극행정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2명을 선발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군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최종 심사 결과, 경제교통과 조강철 팀장, 건강증진과 박소영 주무관이 선발됐다.

경제교통과 조강철 팀장은 금당면민이 고흥 녹동을 방문할 경우 배 시간과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주민들이 급히 이동해야 하고,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금당-고흥 녹동 간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

건강증진과 박소영 주무관은 보호자가 없는 조현병을 가진 정신 질환자로 인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환자를 병원

입원토록 하고 치료비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을 해결했다.

군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금과 함께 성과 상여금 한 등급 상향, 근무 성적 평정 실적 가점(0.3점), 포상 휴가(3일)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적극행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강성운 부군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적극행정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대덕 가학지구 30년 된 노후 용·배수로 재정비

20억원 사업비 투입해 2025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

장흥군은 대덕읍 가학리 일원의 농경지에 대해 '대구획경지정리 시설개량사업'을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획경지정리 시설개량사업은 과거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용·배수로, 농로 등 영농 기반시설이 노후된 구간을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덕 가학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시설개량사업은 2023년에 설계와 시행계획 승인 등의 행

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로 정비 1.0km, 용·배수로 정비 7.5km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수혜면적은 78ha이다.

대덕읍 가학리의 영보동, 가학동 일대의 농경지는 1991년에 일반경지정리가 완료된 곳이다.

이곳은 기존 용수로와 배수로가 노후·파손되고 배수단면이 부족해 농경지 침수피해가

잦고 농로가 협소해 대형 농기계의 통행에 불편이 많은 지역이다.

장흥군에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경지 침수예방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장흥읍 영전지구와 한들지구 등 꾸준히 대구획경지정리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노후 된 용·배수로 및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송년의 날 행사 개최

감사패 수여...작품전시회 등 3년만에 열린 축제의 장

지난 15일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송자)은 2022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의 날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기관단체장 등 180여 명이 참석해 뜻 깊은 날을 함께 축하했다.

기념식은 김송자 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진원 강진군수, 김보미 강진군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복지관 종사자들이 현대나눔재단, 에스오일 등에서 주최한 난방유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250만 원 상당의 난방유를 장애가정 8가구에 전달했다.

우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4년 동안 매월 1회 이미용 봉사도 따뜻한 사랑을 나눠준 빅토리아미용실 신정아 원장에게 감사장을, 복지관 냉난방기를 후원한 오렌지문구 박형엽 대표, 새중앙의원 김종성 원장과 매년 나눔의 의미를 지원한 탐진로타리클럽 최재영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복지관 2층 행사장 입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1년 동안 활동한 사업을 영상으로 엮어 함께 시청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부 행사로 공연과 노래자랑을 열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됐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37명 추가 초청·입국

진도군-필리핀 리잘시 간 MOU 협약...연말까지 총 88명 입국

진도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37명이 추가로 초청·입국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올해 8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위해 진도군과 필리핀 라구나주 리잘시는 MOU를 체결한 후 지난 12월초 필리핀 계절근로

자 31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지난 16일(금) 37명이 추가로 입국했으며, 연말까지 20명이 입국해 총 88명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어촌 경영 안정과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